



제37회 전국 남녀 응변·스피치 대회 참가자들과 입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평화통일·복지농촌... 잘 사는 고장에 밀거름’

- ① 일반부 주제가 연사가 열변하는 모습.
- ② 김종수 전체 최우수상 수상자가 열변하는 모습.
- ③ 일반부 탁정실 연사의 열변 모습.
- ④ 김기태 연사의 열띤 응변.
- ⑤ 이명희 연사의 힘찬 열변.
- ⑥ 학생부 손병국 연사의 열변.

평화통일 및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제37회 전국응변스피치 대회가 최근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강당에서 열렸다. (사)한국스피치·응변협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평화통일과 복지농촌건설을 위해 올바른 언어생활, 발표능력 향상을 물론 선진국민, 복지농촌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국민이 앞장서자는 목적으로 열리게 됐다. <본보 7월 2일자 14면> 이 행사에는 김양욱 (사)한국응변인협회 전북회장을 비롯해 정동영 국회의원과 정운천 국회의원, 함경식 (사)한국응변인협회 전북이사장, 이남숙 전주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고, 응변대회 참가 연사들은 뛰어난 응변실력을 보여줬다. 김양욱 전북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연사들의 외침이 전국에 메아리쳐 평화통일 및 전통 계승으로 잘 사는 고장에 밀거름이 되어주길 기원한다"며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한껏

펼쳐주고 고장의 명예도 함께 드높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경식 대회장과 이남숙 부대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참석한 이들과 국민 모두가 통일 함양 구축과 전통문화계승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회에서 김종수(임실군), 김종갑(임실군)씨가 전체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천태식(순창군), 차수민(남원시), 안인회(전주시)씨가 대학일반부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현결(전남 왕운초 2)군과 장지수(전주 민수초 4), 변호진(익산 함열초 5)군이 학생부 대상을 수상했고, 이채원(새싹어린이집) 어린이가 유치부 대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김재훈 기자



인사말하는 김양욱 전북회장.



대회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이남숙 전주시의원의 인사말.



대회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



함경식 대회장과 어린이 입상자.